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세경신증마누나님 난산국입네다.

세경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 천하 김진국 데감님 살읍데다. 쯤진국이 부인님이 부베간에 멧언 사난, 이십스물, 사십서른이 넘어도 남녀간에 아기 엇언¹⁾ 호이탄복(後悔歎服)허십데다. 남당법당 유기전답 물모쉬 좋고, 종하님 거느리는 게 정이 엇인 정수냄이 거느리령 사압데다. 흐를날은 김진국 데감님이 삼천선비, 일만선비 바둑 장계 노념놀이를 허난 걸추(傑出)힌 선비가 굳는 말이,

“김진국이 데감님아 아기 엇인 돈을 기영²⁾ 땅³⁾ 가민 아들 잇영 주영 먹을 거짜? 딸이 잇영 주영 먹을 거짜?”

이 말을 들으난, 김진국 데감님은 두던 바둑 장계를 놓아 텅 내려오랏구나. 높은 낭에 세 짐승이 세끼 낭 먹이 물어단 오조조 일럼구나.

“날만 못헌 세 가막세도⁴⁾ 아기 세끼 하나 놓안 오조조 일럼구나.”

내려오단 보난, 황천데국(仰天大笑) 웃음 소리가 나앗구나. 간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⁵⁾ 돌찌 귀 거적문을 들앗구나.⁶⁾ 창꼬냥을 딱안 톨란⁷⁾ 보난 얻어먹는 계와시덜이⁸⁾ 아이 세끼 하나 놓안, 아방안티 신⁹⁾ 애기 어명한티 가민 황천데국, 어명한티 잇인 애기 아방안티 가민 황천데국 웃음 웃엄구나. 집이 오란 정술덥이가 밥 혼 상 출령¹⁰⁾ 노난 밥을 아니 먹으난, 쯤진국이 부인님이,

“이 밥을 먹읍서. 웃을 일이 잇우다.”

그 밥을 먹엇구나. 앞데자를 열어 놓안 논다. 은단펍(銀丹瓶)에 서단마게,¹¹⁾ 능화도비(菱羅塗壁), 소라만단지, 각진장판(角壯壯版)에 둥그려도 웃음이 아니 나오랏구나.

동계남(東觀音) 은중절, 서계남(西觀音) 상세절, 남계남(南觀音) 녹농절, 북하산 미양안동절 푼처¹²⁾ 지컨 데서님 하늘 굴른 굴송낙, 지에 굴른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를¹³⁾ 둘러 받안 김진국 데감, 쯤진국 부인 사는 짓알로 도느리며,

“소승은 절이 뵈네다.”

-
- 1) 엇언: 없어.
 - 2) 기영: 그렇게.
 - 3) 땅: 따서.
 - 4) 가막세도: 까마귀도.
 - 5) 피조리 초막살이: 매우 작고 형편이 안 된 초가집 막사리.
 - 6) 들앗구나: 달앗구나.
 - 7) 톨란: 뚫어서.
 - 8) 계와시덜이: 거지들이.
 - 9) 신: 잇는.
 - 10) 출령: 차려서.
 - 11) 서단마게: 마개. ‘서단’은 앞의 ‘은단’에 맞춘 조운(調韻).
 - 12) 푼처: 부처.
 - 13)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를: 종이 들고 다니는 자루를.

“어느 절당에 데섭니까?”

“동계남 은중절에 살았습니다. 우리 법당에 당도 파락(破落)이 되고, 절도 파락이 뉘난 권제삼문(勸齋三文)을 받아단 헌 당, 헌 절 수리허고 멍(命) 없는 이 멍을 주저. 복(福) 없는 이 복을 주저. 생불(生佛) 없는 즈순은¹⁴⁾ 생불을 주저. 권제를 받으레 네릿습니다.”

높이 들러 낮이 스르르 권제를 받았 가가난, 김진국 데감님,

“데서님아, 원천강(袁天綱) 스주팔자(四柱八字) 우리 부베간¹⁵⁾ 골라 봅서. 원천강 스주팔자에 아기 엇언 무유유화(無爲而化) 허렌 헌 팔저과?¹⁶⁾ 아니민 불공(佛供)이라도 드리민 애기 잇일 팔자과?”

단수옥갑(單數六甲) 오용팔괘(五行八卦) 지편 곤는 말이,

“아기 엇영 무유유화 허렌 헌 팔전 아니우다. 영급(靈給) 종양 좋은 법당에 강 불공 드리 봅서.”

헤여두고 데서님은 권제를 받았 절간 법당더레 소곡소곡¹⁷⁾ 도올라가십데다예~.

김진국 데감님, 즈진국이 부인님 강모디는¹⁸⁾ 강나룩,¹⁹⁾ 수답(水畝)이는 수나룩,²⁰⁾ 모답이는 모나룩 심엇구나.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中白米), 워백미(下白米) 착쌀 엇이²¹⁾ 출려 간다. 가삿베도 구만 장, 송낙베도 구만 장, 두리베도 구만 장, 물멍지(-明紬), 강멍지(-明紬), 세양페, 세미녕,²²⁾ 고리비단(--緋緞), 한비단(-緋緞), 능화도비(菱羅塗壁) 마바루에 실렸구나. 금마답에²³⁾ 수리 두고,²⁴⁾ 올레에²⁵⁾ 막음 두언 첩첩삼중(疊疊山中)을 올랐구나.

싱근 돌에,²⁶⁾ 몰팡돌에 쉬엇구나. 안네서 데서(大師)님이 곤는 말이,

“소스야, 소스야, 먼 올레 나고 보라. 어느 양반이 덕에서 불공을 오람시니? 네눈이반동게가²⁷⁾ 중이는 보민 두 발을 들롭고, 하인은 보민 누영 주꾸는 네눈이반동게가 네 발을 들렁 드리쿵쿵 주뀸구나.”

소사중은 먼 올레 나간 싱근 돌에 몰팡돌이구나.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느 양반이 덕(宅)에서 불공 옹데가?”

“너히 법당에 영급이 좋덴 허난, 우리 천하 김진국 데감 즈진국 부인님이렌.”

허난,

“안드로 들어옵서.”

들어가난 안사랑, 밧사랑, 네웨사랑을 출렸구나. 갓영 간 거 은분체에²⁸⁾ 도금²⁹⁾ 올려간다. 상탕(上湯)에는 메를 짓고, 중탕(中湯)에는 모욕(沐浴)허고, 하탕(下湯)에는 수족(手足) 싯첫구

14) 즈순은: 자손은.

15) 부베간: 부부간에.

16) 팔저과: 팔자입니다.

17) 소곡소곡: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양.

18) 강모디는: 강답(-畝)은 건답(乾畝).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곧 마르는 논.

19) 강나룩: 밧벼의 일종.

20) 수나룩: 논벼.

21) 착쌀 엇이: 쪼개진 쌀이 없이.

22) 세미녕: 무명 면포(綿布).

23) 금마답에: 마당에.

24) 수리 두고: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고. 흔히 ‘감봉수레 하고’라고 말함.

25) 올레에: 거릿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에.

26) 싱근 돌에: 심은 돌에.

27) 네눈이반동게가: 눈가에 점이 있어 네 눈으로 보이는 제주산 토종 사냥개가.

28) 은분체에: 은부처에.

29) 도금: 돈(錢)과 금(金).

나. 돌아올 땐 월광(月光)이, 지어갈 땐 일광(日光)이, 중천비단 당돌님 세양상 받아 오던 옥계 천신 일월님 사나사나, 백일 불공을 드렸구나. 백일째 되는 날 데서님 꼬까막 은저울데³⁰⁾ 갖 영 오란 곧는 말이,

“오널은 백일이 뉘엇우다. 백 근이 뉘민 아덜이 나고, 백 근이 못 차민 여즈식(女子息)이 날 듯 허십네다.”

꼬까막 은저울데 저우리난,

“출령 온 건 하영³¹⁾ 출령 오랏우다만은 백 근이 못 차난, 여즈식이 날 듯 험네다. 네려강 합궁일(合宮日)을 받안 천상베필(天上配匹) 무어 봅센.”

허난, 김진국 데감님, 쯤진국 부인님 푼천님 절 삼베 올리고 금마답에 수리 두고 올레에 막 음을 두고 첩첩산중(疊疊山中) 내려오라 간다. 헤는 열락서산에 다 지엇구나. 어욱페기 으지혜 여³²⁾ 무정눈에³³⁾ 즘을³⁴⁾ 자난 선몽(現夢)이 뉘엇구나. 앞이명엔 들님이여. 듯이명엔 든 양단 어께 금산세별 벳힌 듯헌 아기씨가 콤더레³⁵⁾ 들어오난 엄뜻 일어난난 꿈이로구나. 헤몽산에 간 헤몽(解夢)헤엇구나.

집이 오라 합궁일을 받았구나. 부베간이 천상베필을 무으난³⁶⁾ 석 들 열흘 백일이 뉘난 전이 먹던 음식이 아니로구나. 전이 먹던 밥이 아니여. 밥에는 골네³⁷⁾ 나고, 장에는 장칼네가³⁸⁾ 나고, 물에는 펄네가³⁹⁾ 나고, 옷 입던 옷에는 뚝네가⁴⁰⁾ 나암구나.⁴¹⁾ 아흠열 들이 나 난 것 보난 여즈식이 나앗구나.

“이름이 지와 보저.”

우리 부베간 절간에 강 불공 드린 쯤청(自講)헤연 난 애기난 쯤청비로 이름을 지엇구나.

훈 설 두 설 넘어간다. 예시일곱 설 넘어간다. 열다섯 십오 세가 당헤여가난 상다락에 노념 한다. 중다락에 노념한다. 하다락에 노념한다. 흐를은 정술덱이가 오랏구나.

“야 정술덱아, 니 손은 무사⁴²⁾ 경 곱닥허니?”⁴³⁾

“상전님 모른 소리답서. 상전님은 아침이 일어나 바 이불자리도 아니 게고, 마당도 아니 썰 고, 정제가 강 밥도 안헤고, 그릇도 아니 씻치고, 솥전도 아니 들르난 얼마나 손이 곱과? 난 종이라부난 맨날 아침이 일어나민 밥 허저. 마당 쓸저. 정제에서 그릇 씻치저. 솥전 들르당 보 민 손톱에 검은 피 거멍 헤엇인디, 주천강 연네못디 강 맨날, 맨날 상전님 입어난 옷 소답헤 단⁴⁴⁾ 보난 손이 곱닥허웁네다.”

“정술덱아, 나도 허민 고울 꺼가이?”

30) 꼬까막 은저울데: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도록 만들어진 은저울(銀衡) 대추나무로 만들어 졌다고 함.

31) 하영: 많이.

32) 으지혜여: 의지하여.

33)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기는 눈에.

34) 즘을: 잠을.

35) 콤더레: 품에.

36) 무으난: 맺어서.

37) 골네: 군내. 본래의 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아니한 냄새.

38) 장칼네가: 묵은 장에서 나는 냄새가.

39) 펄네가: 물비린내.

40) 뚝네가: 땀냄새가.

41) 나암구나: 나는구나.

42) 무사: 왜.

43) 곱닥허니: 고우니.

44) 소답헤단: 빨래하다.

“아이고 상전님은 놀아난 손이난 더 고옵네다.”
 쯔청비 입던 옷 ㄱ는데 질누끼에⁴⁵⁾ 물마께 놓안 연소답을 네렸구나.
 하늘 옥항에 문왕성에 아덜 문도령은 봇짐을 매연 알엿녁⁴⁶⁾ 거무선생한테 넘어가단 보난,
 주천강 연네뭇디 오랏구나. 넘어가단 얼핏 보난,
 ‘꽃 ㄱ뜬⁴⁷⁾ 아기씨가 연세답을 헤염구나.’
 남자이 기십으로⁴⁸⁾ 입불연을 헤여보저. 기불연을 헤여보저.
 “지나가던 선비우다. 목이 ㄱ웃ㄱ웃⁴⁹⁾ 기리난 물 훈 직만⁵⁰⁾ 줍센.”
 허난, 어서 포주박을 네령 주엇구나. 그걸로 물을 탕탕 세 번 떼리고 이레 활락, 저레 활락
 젓언 물을 떼 수양버들 잎세길 주난, 문도령은 그걸 푸푸 불멍 먹엇구나. 먹영 곤는 말이,
 “얼굴은 보건디는 양반이 같아도 속마음은 쌍놈만도 못헙네다.”
 “무신 덕분에 그런 말을 곱암수꽈?”
 “무신 덕분에 물을 탕탕 세 번 떼립디가?”
 “물에도 거머리 잇이난,⁵¹⁾ 거머리 알더레 떨어지렌 떼렛우다.”
 “이레 활락, 저레 활락 무사 젓입디가?”
 “검질 끄레기 잇어부난, 검질 꺼레기 이레 활락, 저레 활락 젓엇우다.”
 “무신 덕분에 수양버들 잎세권 띠웁데가?”
 “급히 가는 사람 물을 먹으면 체허난 후후 불멍 체나지 말렌 안넛우덴.”
 허난, 문도령도 그 말에 쯔청비 얼굴 보난, 훈빱 반헤고 쯔청비도 그 말을 곱으멍 문도령
 얼굴 보난 천하 도령이로구나. 둘이가 훈빱 빠졌구나.
 “웁서. 우리 통성명(通姓名)이나 헤여 보게.”
 “기영 험서.”
 “난 하늘 옥항에 문왕성이 아덜 문도령입네다. 알엿녁 거무선생한테 글공부 감수덴.”
 허난,
 “난 주년국 땅에 쯔청비우다.”
 쯔청비가 꺾를⁵²⁾ 네엿구나.
 “나영 ㄱ뜬 쌍둥이가 잇우다. 글공부 가젠 허난 글공부 갈 선비가 벗이 엇언 잇이난 우리
 집이 강 우리 동생 데령가기 어떻허꽈?”
 “어서 기영 험서.”
 문도령 강 ㄱ찌 오랏구나.
 “이 올레에 사십서.”
 안네 들어강,
 “아버지, 어머니 나 알엿녁에 글공부 강 오쿠다.”
 “아이고 야, 야, 예편년이⁵³⁾ 남도 낫저.⁵⁴⁾ 글이렌 현 건 무신 글이고?”

45) ㄱ는데 질누끼에: 가는 대나무로 만든 등에 짐을 저 나를 때 쓰는 큰 바구니에.

46) 알엿녁: 아랫녁.

47) 꽃 ㄱ뜬: 꽃 같은.

48) 기십으로: 기운(氣運)으로.

49) ㄱ웃ㄱ웃: 목이 마른 상태.

50) 물 훈 직만: 물 한 모금만.

51) 잇이난: 있으니.

52) 꺾를: 꺾를.

53) 예편년이: 여편네가.

54) 남도 낫저: 나기도 낫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헤여 봅서. 이제만이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축지방(祝紙榜)은 누게가 쓸 꺼꽈?”

그 말을 들은 낫맞구나. 아버지, 어머니 허락(許諾) 허난, 여자 방에 강 여자 옷 다 벗어 두고 남자 방에 강 험벽으로⁵⁵⁾ 가슴을 감안 남자 옷을 입었구나. 붓집을 등에 미었구나.

먼 올레 나오란 문도령 봐지난 절을 소곡 헤엿구나. 문도령이 곤는 말이,

“긫사⁵⁶⁾ 들어간 쥬청비하고 무사 영 얼굴이 ㄱ뜨꽈?”⁵⁷⁾

“우리는 혼 어멍, 혼 아방 난 애기난 응, 얼굴이 ㄱ뜨주 틀릴 수가 잇습네킨까? 난 쥬청도레가 됩넬다.”

“웁서. 가게.”

알엿넬에 네렸구나.

알엿넬에 네리난 그날 밤을 지세우젠 허난, 쥬청비가 다시 꺾을 네여 간다. 이불 속더레 은데양에 물을 떠단 은젓가락을 놓았구나. 무정눈에 줌도 혼줌 안 자 튼 눈으로 세왔구나. 뚝날⁵⁸⁾ 아척은⁵⁹⁾ 일어나난 문도령이 곤는 말이,

“야, 쥬청도레야, 무신 덕분에 이불 속에 은데양에 물을 떠 놓안 은젓가락을 걸천디?”

“모릅데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나 나올 적에 글도 자원(壯元), 활도 자원하젠 허민 요축 행 떨어지민 문딱 떨어지고, 아니 떨어지민 글도 장원넬데 험디다.”

허난, 그 말이 쥬청비 꺾에 넘어가았구나. 뚝날 저녁부떠는 문도령은 은데양에 물을 떠단 은젓가락 놓안 이레도 누웁 못 자고, 저레도 누웁 못 자고, 튼 눈으로 날을 세고 쥬청비,

‘문도령 저거 떨어지민 아니 뚝 꺼난 줌 혼줌 못 잘 꺼여. 나랑 므음 낱.’

이레 돌아 누웁, 저레 돌아 누웁 줌을 자는 것이 뚝날부떠 삼천 서당에 가민, 하늘천 따지 헤여 가민 문도령 밤세낭⁶⁰⁾ 줌 혼줌 못 자난, 꼬박꼬박 조로왔구나. 쥬청비는,

“하늘천 따지.”

글도 자원헤여 간다. 활도 자원헤여 간다. 흐를날은 문도령이 오란 곤는 말이,

“야, 쥬청도레야, 오라. 느영 나영 씨름이나 헤여 보게.”

“기영 허라.”

데답은 헤여동,

‘난 여자라부난 문도령 어떻게 이겨보코.’

춤⁶¹⁾ 갖디단 양귀따지에 문지락허게 불랐구나. 문도령이 씨름허젠 헤여 가민 문도령이 둘라와라 가민 오른쪽더레 돌아사불고, 또 돌아와 가민 왼쪽더레 돌아사 가고 문도령도,

‘요눔으 쥬척 나 가는 방향을 피험구나. 혼번 저 머리카 심영 열메당⁶²⁾ 부찌주.’

눌러 들인 머리를 심는 게 귀차지, 양볼따지 미끄락허난 춤지름 불라비엿구나.⁶³⁾

‘요떼로구나.’⁶⁴⁾

쥬청빈 눌러 들인 문도령 허리띠 심영 앞다리 탁허게 걸천, 열메당 부찌부난 씨름도 지엇구

55) 험벽으로: 형겅으로.

56) 긫사: 금방.

57) ㄱ뜨꽈: 같은가요.

58) 뚝날: 뚝날.

59) 아척은: 아침은.

60) 밤세낭: 밤새도록.

61) 춤지름: 참기름.

62) 열메당: 걸쳐 메다가.

63) 불라비엿구나: 발라버렸구나.

64) 요떼로구나: 이때로구나.

나. 문도령은 흐르는 잇이난,

“야, 조청도례야, 이레 오라.”

“무사?”

“오라. 니영 나영 오늘랑 오즘 골길락⁶⁵⁾ 허여 보게.”

‘난 여자라부난 어떻허코?’

옆이 보난 물 하나 잇인 게 물통을 싸낫구나. 물통 두 게에다 왕데 무작에⁶⁶⁾ 무꾼⁶⁷⁾ 강 알에⁶⁸⁾ 꼭허게 좁전⁶⁹⁾ 잇구나. 문도령은 으섯 발을 굴기난, 조청비는 잇는 힘을 베에 주언 확허게 현 굴긴 게 열두 방청을 굴것구나. 어리석은 문도령 조청비 꺾에 넘언 글도 떨어지고, 씨름도 허난 지어불고, 오즘 골길락 허난 지어불고, 아침이 일어난 은데양에 물을 평 세수를 헤노렌 허난, 하늘 옥항에서 부엉이 짓눌게에 수양버들 잎세귀에 특허게 떨어졌구나. 바레보난 하늘 옥항에서,

‘문도령아, 흔적 올라오라. 서수왕에 장게 들라예~.’

문도령은 책불을 싸암구나. 조청빈 보난,

“야, 문도령아, 무사 책불을 쌘시니?”

“우리 아버지 올라 오랑 서수왕에 장게 들렌 험덴.”

허난, 아이고 조청비 어떻허민 좋고,

“야, 올 때도 ㄱ치⁷⁰⁾ 오랏인디 니만 갈티야?”⁷¹⁾

“오라. 우리 ㄱ치 가게.”

“오라. 기영 허라.”

가가난 조청비가 따시 꺾을 네여 간다.

“야, 문도령아, 이레 오라. 우리 삼천서당에 글공부 허단 보난 글 췌들 아니 올르느냐? 오라. 우리 모욕(沐浴)행 가게.”

물통이 두 게 잇이난,

“문도령아, 넌 씨름도 지고, 오즘 골길락도 지고 허난 너랑 알통에서 모욕허라. 나랑 문딱⁷²⁾ 니한티 이기난 옷통에 강 모욕허마.”

“기영 허렌.”

허난, 어리석은 문도령은 옷 우알로 민짝허게 벗언 이레 풍당, 저레 풍당 몸모욕허여 간다.

‘이때나 바릴 꺾가? 저때나 바릴 꺾가?’

헤여도, 문도령 아니 바레여 가난 조청빈 보션을 벗언 다리를 물더레 커난 첨방첨방 헤엿구나.

‘어리석은 문도령아, 영 헤여도 남녀 구별을 못헤염구나.’

춤⁷³⁾ 춤단 수양버들 잎사귀 펜지를 띠완 간다.

‘난 조청도례가 아니고, 조청비가 뵤어지다.’

알통더레 던지난, 문도령은 그걸 받고나 조청비 맨발로 주년국 땅더레 와락치락, 와락치락

65) 골길락: 갈길락.

66) 무작에: 마디에.

67) 무꾼: 묶어서.

68) 강알에: 사타구니에.

69) 좁전: 사이에 끼어 넣고.

70) ㄱ치: 같이.

71) 갈티야: 갈 것이냐.

72) 문딱: 모두.

73) 춤단: 춤다가.

가간다. 아이고 문도령은,

‘요거 쯤청비로구나. 혼 이불자리에 즘을 자고, 씨름을 허고, 오줌 글길락을 헤여도 나가 눈치를 못 체엿구나엔.’

헤여, 쯤청비를 어떻행 심으코 바지를 입는 게 혼 가달⁷⁴⁾ 속더레⁷⁵⁾ 두 게 들어가고, 우이 옷을⁷⁶⁾ 입는 게 우뚝지에⁷⁷⁾ 걸치는둥, 마는둥,

“야, 쯤청비야, 쯤청비야, 가던 걸음 멈추왕 올레에 사시라 나가 혈 말이 잇저.”

그 말을 들은 쯤청비도 사앗구나. 문도령이 강 아이고 흘목⁷⁸⁾ 심영⁷⁹⁾ 사실 말을 다 곱아가난,

“옵서. 우리 오늘밤이랑 우리 집이 강⁸⁰⁾ 장⁸¹⁾ 갑서.”

“어서 기영 현.”

“이디 잇입서. 나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한테 강 허락(許諾) 말앙 오쿠다.”

안네 들어강 남자 방에 간 남자 옷 벗어두고 여자 방에 강 여자 옷 입언,

“아버지, 어머니, 글서당에 강 오랏우다.”

“아이고 나 똥애기 착허다.”

“아버지, 어머니, 곱을 말 잇우다.”

“무신 말이고?”

“갈 떼도 ㄱ치 가고, 올 떼고 ㄱ치 오난 갈 길은 멀고 헤는 다 지엄수께. 이 밤, 저 밤, 야 상경 어떻험네까? 우리 집이 장 가게 헤여 줍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우다.”

“열다섯이 넘엇걸랑 우리 방에 보네고, 열다섯이 아니 넘엇걸랑 느네 방에 데령 가렌.”

허난,

“열다섯 아니 넘엇습네다.”

문도령이 데령 방 안네 오란 그 밤을 지세와 상다락에, 중다락에, 하다락에 노렴헤연 문도령만 네불엇구나. 흐를날은 쯤청비한티,

“나 옥항더레 올라가기여.”

“어서 기영 험서. 본메 본짱을⁸²⁾ 줍센.”

허난, 상동낭 용얼레기⁸³⁾ 반착 갈란 주엇구나.

“모릿날⁸⁴⁾ 스오시(巳午時) 뉘민 나가 네리켈.”

헤여동, 문도령 옥항더레 올라 가부난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뉘어도 아니 네렛구나. 상다락에 노렴헌다. 중다락에 노렴헌다. 하다락에 노렴헤연 하도 심심허난, 남창구문을 열언 보난 늬이 집 종하님덜 뉘 등어리에, 쉼 등어리에 설피냥⁸⁵⁾ 헤영 무꺼 놓고 뉘머리, 쉼머리 메화꽃

74) 가달: 다리. 바지 한 쪽 부분.

75) 속더레: 속에.

76) 우이 옷을: 윗옷을.

77) 우뚝지에: 어깨에.

78) 흘목: 손목.

79) 심영: 잡아서.

80) 강: 가서.

81) 장: 자고.

82) 본메 본짱을: 증거가 되는 물건을.

83)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얼레빗.

84) 모릿날: 모레.

헤연 꼽아 놓고 아지랭이 아물아물 콧노레 부르며 내려오람구나. 조청빈 용심이 낮구나.

“요놈의 즈석 우리 집이 정이 엇인 정수넴이 오늘도 밥 뽕그랭이 먹언 멧방석 닳은 머리광 어디 강 즈 잠신고?86) 요놈의 즈석 어디 신고?”87)

춧단88) 보난, 아난 게 아니라 벧89) 과랑과랑 나는디 으지에 즈 잠구나.

“아이고 요놈의 즈석아, 놈이 집이 정하님덜은 굴미굴산, 아야산90) 올라강 설피낭도 헤영 오고, 메화꽃도 꺼깁 오고, 콧노레도 부르는데 너는 오늘 뽕그랭이 밥 먹영, 니91) 사냥만 헤 염느냐?”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나도 행 와짐네다. 물 벵 세도 네여 줍서. 쉼 벵 세도 네여 줍서. 한기 도치도92) 네여 줍서.”

네여 주난,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곳 올라 강 동더레, 서더레, 남더레, 북더레, 가지더레 물 석,93) 쉼석94) 무꺼두고 동더레 누워 혼즘, 서더레 누워 혼즘 즈자단 보난 일어낭 보난, 말 모 른 짐승 애가 콤콤 몰란 느란느란 다 죽엇구나. 메톱 닳은 손톱으로 쉼가죽도 베껴 간다. 물 가죽도 베껴 간다. 설피낭 걸언 멧게낭95) 고쟁이 바수완 익었이나? 혼 점 설었이나? 혼 점 허멍, 물 벵 세, 쉼 벵 세 다 먹언 물가죽, 쉼가죽 비장 옷으로 등에 지언 내려오라 간다. 내려오단 보난 주천강 연네뭇디가 잇엇구나. 물오리 혼 쟁이 이레 활랄, 저레 활랄 히어 덩겜시 난.

“우리 상전님은 저 물오리 혼 쟁만 마쳐 강 안네믄 지꺼질테주.”96)

어떻허리 한기 도치로 흑허게 던지난, 물오리 한기 도치 빠지는 풍덩허는 소리에 놀레연 날 아가불엇구나.

“아이고 잘헤먹어라. 잘헤먹어라.”

물 벵 세, 쉼 벵 세도 다 잡아 먹으고, 한기 도치 일러부난97) 어떻게 우알로98) 옷 벗언 던져두고 물 속에 강 한기 도치 건전 오란 보난, 핏체 7픈 도둑놈덜은 물가죽, 쉼가 죽 갖영 가명99) 정이 엇인 정수넴이 구쟁이 점벧이100) 옷도 문딱 갖영 가불엇구나예~.

“어떻허민 좋고?”

가운데 77심만101) 드랑허게 등겜구나. 옆이 보난에 모시 잇구나. 모시 툐안 가운데 77심 정 당줄로 무깁,

‘낮이 가가민 놈이 집 종덜 알민 안 뵈로구나.’

이 밤, 저 밤, 야상경, 깊은 밤이 뵈난 와락치락 오란 울담 넘영 간 장독 안에 간 주쟁

85) 설피낭: 씨레나무.

86) 잠신고: 자고 있나.

87) 신고: 있나.

88) 춧단: 찾아.

89) 벧: 별.

90) 굴미굴산 아야산: 깊은 산속.

91) 니: 머릿니.

92) 도치도: 도끼도.

93) 물석: 말고삐.

94) 쉼석: 쇠고삐.

95) 멧게낭: 망개나무. 혹은 청미래덩굴이라고 함.

96) 지꺼질테주: 기뻐하겠지.

97) 일러불고: 잃어버리고.

98) 우알로: 위아래로.

99) 가명: 가면서.

100) 점벧이: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흠바지.

101) 77심만: 감만. 물건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물질. =77심 여기서는 남자의 성기를 뜻함.

이¹⁰²⁾ 썸 잇엇구나. 듯날 아적은¹⁰³⁾ 정술덱이 밥 허젠 장 거리레 강 보난 주쟁이가 덜씩덜씩 덜씩덜씩 헤염구나.

“아이고 상전님아, 귀신이 나앗우다.”

“어느 것고?”

“장독 안이우다.”

“구신이나? 생인이나? 구신(鬼神)이건 옥항에 올르고 생인(生人)이건 나오렌.”

헤연, 나온 건 보난 정이 엇인 정수냄이 우알로 옷 옷 벌경허게 벗언 나오랏구나.

“아이고 요놈으 즈석 물 백 세, 췌 백 세는 어디 갓느냐? 한기 도치는 어디 갓느냐? 너 구쟁이 점병인 어디 갓느냐?”

정이 엇인 정수냄이 꺾을 네엇구나.

‘우리 상전님은 문도령 말이렌 허믈 지꺼 지난.’

거짓말을 헤여 간다.

“아이고 상전님아, 모른 소리 막서. 굴미굴산 앞머리 올라간 보난 하늘 옥항에 문왕성이 문도령이 궁네청, 시네청들광 연네못디 오랏입데다. 몸모옥 허단 나도 꺾 몸모옥 헛인디 올라 갈 떼 나 옷 갓영 가벗우덴.”

허난, 후욕노욕(詬辱累辱) 허단 서른여덟 니빳디 허우당씩 들러간다.

“계난 따시 오켄 헤냐?”

“아이고 상전님아,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됴민 오켄 헛디다.”

“니 그디 좃앙 가질티야?”¹⁰⁴⁾

“좃앙 가집네덴.”

허난,

“어서 기영 허건 정술덱아, 구쟁이 점병이 정수냄이 옷 멘드라¹⁰⁵⁾ 주라.”

옷 멘드라 입젓구나.

“그덜 좃앙 가젠 허민 어떻게영 가민 뉘느니?”

“느쟁이범벅에¹⁰⁶⁾ 나 정심에랑 소금 놓는둥, 마는둥 허고, 상전님 정심에랑 소금 닷 뉘 낱 헛서.”

“그덜 가젠 허민 어떻게 가느니?”

“세(新) 물을 네여 놓서.”

세 물을 네여 놓앗구나. 세 물을 네여 노난 물안장을 올려간다. 군중 구쟁이닥살이로구나. 군중 구쟁이닥살은¹⁰⁷⁾ 알더레 톡허게 놓안,

“상전님아 올라 샅서.”

올라 사난 구쟁이 딱살은 등 막 물을 꺾꺾 찢러부난 하늘만씩 땅만씩 들러킨다.

“아이고 상전님아, 네립서.”

“무사?”

“요거 봅서. 말 모른 세 짐승도, 물 짐승도 오늘은 나 등에 탕 가민 문왕성이 문도령 만날 꺼옴, 막 와당탕와당탕 티염수겐¹⁰⁸⁾ 안 뉘니다.”

102) 주쟁이: 주저리. 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

103) 아적은: 아침은.

104) 가질티야: 갈 수 있겠느냐.

105) 멘드라: 만들어.

106) 느쟁이범벅에: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로 된풀처럼 썬 음식.

107) 구쟁이닥살은: 소라껍질은.

“어떻허민 됩스니?”

“물머리 코스(告祀)헛서.”

“물머리 코스 어떻게느니?”

“뉘지머리 하나 헤영 눅서. 씨암툽¹⁰⁹⁾ 잡앙 눅서. 밥 행 눅서. 술 올립서.”

올려간다. 물 앞더레 놓안 절 헤 가명 물총 하나 헤영 준비헤였구나. 소꼭 헤동 제반 걷어 단 물 귀더레 지르난 스르륵 허게 들어가난, 물은 귀 속에 물 들어가난 절레절레 허난,

“아이고 상전님아, 요레 바레 볍서. 말 모른 짐승도 지꺼점수께. 상전 먹단 건 하인이 먹고, 하인 먹던 건 게뉘지가¹¹⁰⁾ 먹읍네덴.”

“갓영 강 먹으렌.”

허난, 쉼막에 간 빙애기만씩¹¹¹⁾ 뉘지머리엔 씨암툽 몸머리 문딱 먹언 베가 뽕그랑허게 나왓 구나.

“상전님아, 이 정심밥 집서.”¹¹²⁾

“닌 어떻게젠?”

“난 이젠 물 버릇을 7리차사¹¹³⁾ 뉘 켜 아니파?”

물 안장에 구쟁이딱살 베끗더레 네쳐동 물 안장 우터레 올라 탄다 물 또꼬망¹¹⁴⁾ 확허게 딱 리명,¹¹⁵⁾

“이랴 어서 걸렌.”

허난, 물은 천장, 만장 굴미굴산, 아야산, 오조방산을 올르난 정이 엇인 정수넴이 물석을 무 꺼두고, 상전 올 때7지 무정눈에 즘을 자앗구나. 조청비는 정심밥을 짠 굴미굴산을 올라가젠 허난, 설피낭 낭가지에 열두 복(幅) 호탄치메도¹¹⁶⁾ 다 짓어진다. 올라간 보난,

“아이고 요놈으 조척아, 너 상전안티 정심밥 지어 오랜 행 너 먼저 올라완 너 뉘 허는 짓이 냐?”

“아이고 상전님아, 그런 소리 맵서. 물 버릇 7리쳐난 머리 흥번 돌려나민 아니 뉘난 나도 그냥 여기 잇우덴 허난 읍서. 우리 정심 먹게. 나랑 저디 강 먹쿠다.”

“무사 그딜 갈티?”

“아는 사름은 종하고 먹엄덴 허고, 모른 사름은 우리안티 두갓이렌¹¹⁷⁾ 헛네께.”

“기여 갓영 강 먹으렌.”

허난, 정수넴인 소금 놓는둥, 마는둥 허난 빙애기만씩 먹어간다. 조청빈 소금 닷 뉘 노난 먹 어가난 찬찬헤였구나.¹¹⁸⁾

“아이고 정이 엇인 정수넴아, 니 밥 이레 왕 7찌 먹으라.”

“무사 말이파?”

“니 꺼영, 나 꺼영 출레¹¹⁹⁾ 출리명 7찌 먹게.”

108) 티염수썸: 날뛰고 있고.

109) 씨암툽: 씨암툽.

110) 게뉘지가: 개뉘지가.

111) 빙애기만씩: 병아리만큼.

112) 집서: 짚어지십시오.

113) 7리차사: 가르쳐야.

114) 또꼬망: 똥구멍.

115) 딱리명: 때리면서.

116) 호탄치메도: 홀단치마도.

117) 두갓이렌: 부부라고.

118) 찬찬헤였구나: 짚구나.

“안 됩네다. 안 됩네다. 상전 먹단 건 종이 먹고 종이 먹단 건 게워지가 먹읍네다.”
허난, 경 허건 갖영 강 먹으렌, 상전 꺾 갖영 강 출레로 이녁 밥을 다 먹었구나. 쯔칭비는 찬찬헌 거 먹으난, 애 콧콧 몰랐구나.
“정이 엇인 정수넴아, 애가 콧콧 몰람시난 물 혼 직만 도라. 물 혼 직만 도라.”
“옵서. 요레 옵서.”
가단 보난, 물이 잇엔 놀려 들엔 먹젠 허난,
“상전님아, 요 물 먹지 맙서. 요 물은 세가 먹는 물이우다.”
아이고 가단 보난 또 물이 잇었구나. 놀려 들엔 먹젠 허난,
“요 물은 물 백 세가 먹는 물이우다.”
애가 콧콧 더 몰라간다. 가당 보난 주천강 연네뭇디가 잇었구나. 놀려 들엔 먹젠 허난,
“상전님아, 상전님아, 이 물은 처녀총각이 죽은 물이라부난, 요 물을 먹젠 허민 우알로 민짜 허게 벗이고, 궁둥인 하늘 우터레 올리고, 아구턱은 물더레 데연 먹어서 됩네덴.”
허난,
“아이고 안 먹키여. 안 먹키여. 죽으면 죽어도 난 기여 못허켄.”
허난,
“나 바레 봅서. 나 먹는 거 바레 봅서.”
정이 엇인 정수넴이 옷 우알로 민짜허게 벗엔, 궁둥인 하늘 우터레 올려 놓고, 아구턱은 물 더레 데연 할랄 먹어가난, 쯔칭빈 물 먹는 거 보난 애가 더 몰랐구나.
‘아이고 죽음과 삶이 맞서라.’
옷 민짜허게 벗어두고, 궁둥이 하늘 우터레 올린 물을 먹었구나. 정이 엇인 정수넴은 이때 로구나. 상전님 옷 갖연 물가이 빙빙허게 돌아,
“상전님아, 상전님아, 물구렘더레 바레 봅서. 하늘 옥항에 문왕성 문도령 궁녀청, 시녀청 노 념놀이 헤염수께.”
바래여 보난,
‘아이고 정수넴이로구나. 아이고 나가 저거안티 이떼??지 속았구나. 어떻허민 좋고?’
“아이고 정수넴에 나 옷 도라. 나 옷 도라.”
“안 됩네다. 상전님 앵두 ㄱ든 입수나¹²⁰⁾ 쪽허게 혼번 빨아뵤이민¹²¹⁾ 좋구다.”
“아이고 정이 엇인 정수넴아, 나 입술 ㅼ는 거보다 나 방에 강 꿀단지 할트민¹²²⁾ 그거보다 더 돌아진덴.”¹²³⁾
“안 됩네다. 상전님아 젓통이나 혼번 몽실몽실 문직아¹²⁴⁾ 뵤이민.”
“아이고 나 젓통 문직아 보는 거보다 나 방에 강 보라 가지깽이가¹²⁵⁾ 더 좋아진다.”
“안 됩네다. 아끼씨 좃데 ㄱ든 허리 안아 뵤이민 좋구다.”
“나 좃데 ㄱ든 허리 안아 뵤 무시 거 혈티? 나 방에 가민 나 베던 베게 베민 안아 보민 그 거가 더 좋아진다.”
“안 됩네다. 경 허건 상전님아 손이나 혼번 심어보쿠다.”

119) 출레: 반찬.
120) 입수나: 입술이나.
121) 빨아뵤이민: 빨아뵤으면.
122) 할트민: 핥으면.
123) 돌아진덴: 달다고.
124) 문직아: 만져.
125) 가지깽이가: 밥그릇 뚜껑이.

“안 됩니다. 안 된다. 나 방에 강 보라 나 수(繡) 노는 수틀 심어지민 그거보다 더 좋아지덴.”

허난, 정이 엇인 정수냄이 꾀죽궂찌¹²⁶⁾ 용심이 나간다.

‘아이고 요거 달레사 뵐로구나.’

“정이 엇인 정수남아, 저레 바레보라 헤는 다 지엄시네, 이 밤, 저 밤, 니영 나영 이 산중에 자젠 허민 이슬이라도 피헤사 뵐 거 아니꽈?”

그 말에 빙삭허게¹²⁷⁾ 웃엇구나. 동더레 벌은 가지 서더레 무궂구나.¹²⁸⁾ 서더레 벌은 가지 동더레 무궂구나. 돌은 좃어단 도리도리 싸앗구나.

“정수남아, 나가 안네 강 불 피우건 닐랑¹²⁹⁾ 불 고망 막으라. 경 헤사 브름 고망 막을 꺼 아니꽈?”

“기영 험셴.”

정수냄인 베궂디 사고 쯤청빈 안네서 불을 살랏구나. 불 나오는 고망 봐지는 디 강 꼭허게 돌고망 막으민 안네서 쯤청비 빠불고,¹³⁰⁾ 바궂디 불고망 막으민 쯤청빈 빠불고 허는 게 먼동이 터엇구나. 정수냄이 꾀죽궂찌 다시 용심이 나앗구나.

“정이 엇인 정수남아, 꾀죽궂찌 용심이 나지마라. 요레 오라. 나 동무렵¹³¹⁾ 베영 누렌.”

허난, 서른여덟 닛바디가¹³²⁾ 허우덩씩 들렁 와들랑 오란 상전님 동무렵을 베엿구나. 아이고 쉼시령 닳은 손이 젓가심더레 설궂궂궂 들어오라 가난,

‘아이고 요놈으 쯤석 살령 놔두민 나가 요거한티 죽어질로구나.’

옆더레 바레보난 키까시가¹³³⁾ 잇이난 궂궂당 웬 귀로 꼭허게 찢르난 늑단¹³⁴⁾ 귀로 나오난, 늑단 귀로 꼭허게 찢르난 웬 귀로 나오난 피가 별경허멍 정이 엇인 정수냄이 죽엇구나예~. 멩게남¹³⁵⁾ 이파리 툃툃허게 더궂궂고 몰안장을 타앗구나.

“이 몰아, 저 몰아,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허궂궂랑 오라. 나 넬 좃아건 우리 집더레 궂궂.”

와락치락, 와락치락 네령오라 가는구나. 내려오단 보난 백발노인(白髮老人)이 바둑 장궂 두 단 넘어가가난,

“어평허난 물은 탕 감저만은¹³⁶⁾ 무지력 실총각이¹³⁷⁾ 귀에 피 나건 앞이 샷구나.”

이 말을 들으난, 쯤청비 가심이¹³⁸⁾ 잘락 털어지엇구나. 집이 오랏구나 집이 간,

“아바님아, 어머니아, 궂궂을 말이 잇우다.”

“무신 말이고?”

“종이 귀허꽈? 아니민 자식이 귀허꽈?”

“아이고 그거 무신 말이고? 종이사 데령 살단 실피민 종반역¹³⁹⁾ 시겨불주만은 자식이 더

126) 꾀죽궂찌: 팔죽처럼. 팔죽이 끓을 때 부글거리는 모양처럼.

127) 빙삭허게: 방긋하게.

128) 무궂구나: 묶었구나.

129) 닐랑: 너는.

130) 빠불고: 빼버리고.

131) 동무렵: 무릎.

132) 닛바디가: 잇바디(齒列).

133) 키까시가: 꾸지뽕나무가. =궂궂.

134) 늑단: 오른쪽.

135) 멩게남: 망개나무. 혹은 청미래덩굴이라고 함.

136) 감저만은: 가고 있는데.

137) 무지력 실총각이: 무지렁이총각. 머리를 풀어헤친 총각을 얹잡아 부르는 말.

138) 가심이: 가슴이.

139)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귀헤지덴.”

허난,

“아버지여, 어머니여, 곶을 말 잇우다. 하도 정이 엇인 정수냄이가 나를 죽이젠 허난 나 죽여동 오랏우덴.”

허난,

“아이고 요년아, 요년아, 어평허민 사람 죽여지느니? 나고 가렌.”

허난, 여자 방에 강 여자 옷 벗어두고, 남자 방에 강 남자 옷 입언, 갓을 쓰고 쉼막에 강 몰 하나 네영, 몰안장 걸언 몰 우이 탄, 먼 올레 나사근 가명 가명 가단 보난, ㅎ끌락헌¹⁴⁰) 아기덜이 부영이를 잡아,

“니가 잡았이나? 나가 잡았이나?”

싸웁구나.

“아기덜아 느네 무사 영 싸웁시니?”

“부영이를 나가 먼저 잡았우다.”

“나가 먼저 잡았우다.”

“싸웁지 말라. 부영이 나 주라.”

돈 ㅎ냥씩 주어두고 가단 보난 방(榜)을 부찢구나. 김정싱 데감님이,

‘서천꽃밭디 난데엇이 부영이가 서방말다 부영부영 각시말다 부영부영 하도 울어부난 이 부영이 잡아주민 단똥애기 조운(自願) 사위허켄.’

허난,

‘아이고 이거 좋은 일로구나.’

즈청비 들어간,

“지나가는 선비우다. 오늘밤이 나가 부영이를 잡으쿠다.”

경 행 ,

“우리 집 단똥애기 조운(自願) 사위헤쿠덴.”

허난,

“물이랑 쉼막더레 강 쉼 석을 무꺼동 읍센.”

헤연 가명 굳는 말이,

“말 모른 짐승도 너미 멀리 오랏우다. ㅎ썰¹⁴¹) 밀죽은 못헤여도 물이라도 떠단 주렌.”

헤연 물을 떠다 주난, 물총을 뽑안 셋바닥을 꼭허게 무경 잇엇구나.

“이 몰아, 저 몰아, 우리 집이서사 밀죽을 먹엇주만은 요디선¹⁴²) 어디 밀죽을 먹어지느니? 요 물이라도 먹으렌.”

허멍, 총을 확허게 클르난 할탁할탁 먹으난 김정싱 데감님은,

‘과연 부찢집이 자제로구나예~.’

안네 들어간 즘을 잔다. 이 밤, 저 밤, 야사생경. 깊은 밤이 뉘난 즘청비 우알로 옷 멘들락허게 벗엇구나. 옛돌¹⁴³) 알더레 헤트레이¹⁴⁴) 갈라지엇구나.

“정이 엇인 정수남아, 부영이 몸에 환싱(幻生)헤엇건 나 젓가심더레 느리라.”

ㅎ깁 잇이난 부영이가,

140) ㅎ끌락헌: 조그만 한.

141) ㅎ썰: 조금.

142) 요디선: 여기서는.

143) 옛돌: 디딤돌. =잇돌.

144) 헤트레이: 벌러덩.

‘각시말다 부영부영 서방말다 부영부영’

즈청비 젓가심더레 앓았구나. 옆에 활을 잇단 딱허게 찢린 옛돌 알더레 놓아뒀 안네 들어오 단 즘을 자난, 듯날 야척은 김정싱 데감님이 호통소리가 나았구나.

“야 저 방에 든 손님 네보네라. 어저께 밤에도 부영이가 울어도 잡질 안헛덴.”

허난, 눈을 부비멍 창문을 열었구나.

“하도 피곤헿 즘 자단 부영이 소리 나난, 활을 마쳤우다. 옛돌 알더레 바레 봅서.”

옛돌 알에 바레 보난 부영이가 죽언 잇었구나. 김정싱 데감 단똥애기안티 장계를 들었구나. 단똥애기가 흐를은 오란,

“아바님아, 어머님아, 사위 헤 놓은 게 너무 도고(道高) 높은 집이 사월 헤었우다.”

“아이고 나 똥아, 그게 무신 말이고?”

“두갓이엔¹⁴⁵⁾ 헤연 오늘??지 품사랑 흥번도 안헤염수덴.”

헤난,

“그거사 무신 말이고?”

즈청비 불러단,

“어떻헿 부베간이 품사랑을 흥번도 아니 헴시니?”

“그게 아납네다. 모릿날¹⁴⁶⁾ 스오시(巳午時) 뉘민 서울 상경 과거 보레 덩겨 가야 뉘 꺼라부 난, 몸을 어떻 ㄱ찌 서끄지 안 헴수덴.”

허난, 그 말도 들영 보난 맞았구나.

“웁서. 이제랑 서천꽃밭디 꽃구경이나 강 보게.”

간 보난,

“요건 술¹⁴⁷⁾ 올를 꽃, 요건 피 올를 꽃, 요건 오장육부 살아날 꽃.”

흐나 씩, 흐나 씩 꺼꺼¹⁴⁸⁾ 앓안 쿨더레 쿨었구나. 집이 오란 상동낭 용얼레기¹⁴⁹⁾ 반착 갈란 주멍,

“나 서울 상경 가오쿠다예~.”

뉘를 타 앓언,

“이 뉘아, 저 뉘아, 정이 엇인 정수넴이 죽은 디 좃안 걸렌.”

허난,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곳을 올랐구나. 정수넴이 죽은 디 간 보난 빼만 술그랑¹⁵⁰⁾ 헤 엇구나. 빼를 다 모다다¹⁵¹⁾ 놓았구나. 술 올를 꽃, 피 올를 꽃, 오장육부 살아날 꽃을 놓안 흥 남체로 삼세 번 뚜드난, 멧방석 ㄱ뜯 머리 박박 굶으멍,

“상전님아, 봄죵이나 너미¹⁵²⁾ 늦게 자졌우다.”

“오라. 가게. 우리 아방, 우리 어멍, 나보다 니가 더 귀허덴.”

허난, 뉘 듯터레 테완 집이 오랏구나.

“아바님아, 어머님아, 자식보다 더 귀헌 종을 살런 오랏우덴.”

허난,

145) 두갓이엔: 부부라고.

146) 모릿날: 모레.

147) 술: 살.

148) 꺼꺼: 꺾어.

149)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얼레빗.

150) 술그랑: 고스란히.

151) 모다다: 모아다.

152) 너미: 너무.

“아이고 요거사 무신 말이니? 나 아기가, 춤마 진정 사름을 죽이고 살리고 해엿이나? 나 느
긋든 애기 필요엿덴 나고 가렌.”

허난, 야방 눈에 골리난다.¹⁵³⁾ 어멍 눈에 실지난다.¹⁵⁴⁾ 즈청비 먼 올레 나사난,
‘어딜 가민 좋고?’

걸으멍, 걸으멍 가단 보난 베틀 소리가 질각질각 나왔구나. 헤는 열락서산 다 지엿구나. 이
밤, 저 밤, 야삼생경 다 지어가난 간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에,¹⁵⁵⁾

“주인 잇건 나그네 멋입서.”¹⁵⁶⁾

주모할망이 나완 굳는 말이,

“아이고 이레 왕 바레 봅서. 어딜랑¹⁵⁷⁾ 주인 자고 어딜랑 나그네 잠네까?”

“난 디 사람 집을 지영 납네까? 밧을 지영 납네까? 정제 구석이라도 빌려 줍서.”

안네 들어가난 사실 말을 곱앗구나.

“난 부모도 엿고, 나 혼자우덴.”

허난,

“아이고 난 주모할망이여. 나 애기가 엿저. 오라. 우리 양부모 자식 삼으게.”

“아이고 어머님 고맙수다. 어머님 요건 누게 울영¹⁵⁸⁾ 이 미녕을¹⁵⁹⁾ 짬이파?”

“하늘 옥항에 문도령이 서수왕에 장게 들언 짜는 미녕이렌.”

허난,

“어머님아 베 고프우다. 밥 훈 직만 줍센.”

헤영, 주모할망 정지에 밥 허레 가부난, 베틀 우이 앓안 질각질각 짬구나. 문도령이 생각허
난 관디청이 눈물이여. 서산백옥(西山白玉) 긋든 양지 주용아반¹⁶⁰⁾ 연주지듯 비세 7치¹⁶¹⁾ 울
어간다. 눈물은 똑똑 떨어지난 눈물자국이 금바둑도 옥바둑 7치 해엿구나. 학이세도 그려간다.
공작세도 그려간다. 마지막에 처리를 해엿구나. 가련허다 가령비 불쌍허다 즈청비 이름을 헤
연 세겜구나.

“어머님아, 요거 갓영 옥항에 강 누게 짬 미녕이렌 곱건, 주년국 땅 즈청비 짬 미녕이렌 곱
아 줍서예~.”

주모할망은 그 미녕은 옥항에 갓영 가난, 문도령 굳는 말이 그거를 봤구나.

“할마님아, 요건 누게가 짬 미녕이우파?”

“주년국 땅 즈청비가 짬 미녕이여.”

“즈청비 어딿우파?”¹⁶²⁾

“아이고 우리 집이 수양(收養)뜰로 잇저.”

“강 곱아 줍서. 나 모릿날 스오시(巳午時) 뉘민 내려 가켄 곱아 줍센.”

헤연, 주모할망은 내려오랏구나.

“어머니, 가난 뉘엔 곱디가?”

153) 골리난다: 거슬린다.

154) 실지난다: 벗어난다.

155) 피조리 초막살이에: 사는 형편이 아주 초라한 초막(草幕)살이에.

156) 나그네 멋입서: 손님으로 집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157) 어딜랑: 어디에는.

158) 울영: 어떤 대상을 위하여.

159) 미녕을: 무명을.

160) 주용아반: 향로(香爐).

161) 비세 7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가 울듯이’ 정도의 뜻임.

162) 어딿우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쯤청비야,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뉘민 문도령 오켄 헤렌.”

허난, 모릿날은 당허난 주모할망은 사위 오민 씨암탸 잡아간다. 쯤청빈 방 안에서,
‘어느 때가 쉼 건고?’

무똥에¹⁶³ 창 무똥에 앓안 잇엇구나. 스오시(巳午時)가 다 뉘어가난 문도령이 네렛구나. 문도령도 쯤청비 빨리 만나젠 문을 열젠 헤여가난, 안에서 쯤청비 하도 지꺼지언¹⁶⁴ 문도령 혼 번 장난이난 헤여 보저. 바농을¹⁶⁵ 꼭허게 쥘르난 피가 벌경허게 닳구나. 문도령은,
‘요거 인간에 사름 올 떼 아니여.’

뒤도 아니 돌아보란 옥항더레 올랏구나. 흐김 잇이난 할마님이 씨암탸를 출런 오랏구나.

“아이고 어머니, 노실이¹⁶⁶ 나압데가?¹⁶⁷ 이거 무신 일이파? 씨암탸는 무신 씨암탸이우파? 무사 밥은 두 게우파? 수꾸락은 두 게우파?”

사실은 보난,

“요년, 너 행실(行實)이 요만허난 너 아방 어멍 안네도 눈에 실찌가 닳구나.¹⁶⁸ 나도 느 ㄱ 뜯¹⁶⁹ 애기 필요엿다. 어서 나고 가라.”

쯤청빈,

‘어딜 가민 좋고? 우리 아방, 우리 어멍, 나 나젠 허난 절간 법당에 불공 드런 닳구나.’

절간 법당 들언 가난 데공단에¹⁷⁰ 머리 삭발(削髮)한다. 하늘 골른¹⁷¹ 굴송낙, 지에 골른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¹⁷² 웨우 ㄴ 단 메엿구나.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나아간다.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아간다. 뉘로 받을 딴 흡으로 받아간다. 흡으로 받을 딴 뉘로 받안 권제(勸齋)를 받으레 덩기단 보난, 주년국 땅에 오랏구나. 주년국 땅에 오란 보난 궁녀청, 시녀청덜 질레에 앓안 데성통곡(大聲痛哭)을 헤염구나.

“아이고 궁녀청 시녀청덜아, 무사 이디 앓안 데성통곡을 울엄수파?”

“하늘 옥항에 문도령이 주년국 땅에 네릴 떼 쯤청비허고 모욕(沐浴)허난 물을 평 오렌 허난 좃지¹⁷³ 못헤영 영 울엄수덴.”

허난,

“나가 쯤청비난 그 물을 뜨민 나 ㄱ치 데령가쿠다.”

“기영 험서.”

그 물을 떠주난 궁녀청, 시녀청들광 하늘 옥항더레 오랏구나. 하늘 옥항에 올라간 문도령네 집이 간 권제를 받았 나오명 먼 올레 폭낭¹⁷⁴ 우이 올랏구나. 그날 저녁은 당허난 일출동경(日出東嶺)에 등허게 떠엇구나. 문도령도 창문 베꿋디 앓안 일출동경(日出東嶺)을 보명,

“저 들은¹⁷⁵ 곱기는 곱다만은 게수나무 박힌 듯 헤여도 주년국 땅 쯤청비만이 아니 고올로 구나.”

163) 무똥에: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

164) 지꺼지언: 기빠서.

165) 바농을: 바늘을.

166) 노실이: 노망이. 늙어서 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노망을 점잖게 이르는 말.

167) 나압데가: 닳습니까.

168) 실찌가 닳구나: 벗어났구나.

169) 느 ㄱ 뜯: 너 같은.

170) 데공단에: 중의 머리를 깎는 칼.

171) 골른: 가린.

172)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 승려가 재미(齋米)를 얻으러 다닐 때 등에 지는 배낭.

173) 좃지: 찾지.

174) 폭낭: 팽나무.

175) 들은: 달은.

즈청비도 폭낭 우이서,¹⁷⁶⁾

“저 들은 곱기는 곱다만은 하늘 옥항에 문왕성 문도령만은 아니 고울로구나.”

영 허단 보난, 문도령이 귀썰미 사름 소리가 나앗구나. 먼 올레 나앗구나. 폭낭 우터레 보난
아이고 사람 산 거 닷으난,

“구신이냐? 쟁인이냐? 귀신이건 옥항에 올르고 쟁인이건 알더레 네려오렌.”

헤연 네려온 건 보난에,

‘낮에 우리 집이 권제 받으레 오라나난 중이로구나.’

“누게가 뵈네까?”

“나는 주년국 땅 즈청비우다.”

“즈청비민 나 문도령인데 우리 그땀 헤여질 때 본메 본짱¹⁷⁷⁾ 잇일 꺾디 갖연¹⁷⁸⁾ 잇우파?”

네놓은 건 보난 상동낭 용얼레기 문딱허게 맞앗구나.

문도령은 즈청비 홀목 심영 방에 들어간 이불자리에 누웠구나. 뚝날 아치는 늦인덕 정하님
세숫물 드려 노난 즈청비허고 세수허난 나온 건 보난 물이 더러웠구나. 밥상을 출령¹⁷⁹⁾ 안네
드려 보네난 문도령은 밥 혼 수꾸락도¹⁸⁰⁾ 아니 먹는데 밥사발이 비연 나오랏구나. 필아곡절
(必有曲折)허다. 손꼬냥 창꼬냥 툄란¹⁸¹⁾ 안터레 쏘아 보난 머리 까끈¹⁸²⁾ 중허고 ㄱ찌 밥 먹고,
ㄱ찌 세수허고, ㄱ찌 즈 찾구나. 늦인덕 정하님은 문왕성이안테 곶레 가가난 즈청빈 벌써 알
앗구나.

“문도령님아, 흐김 잇이민 아바님, 어머니님 불를 꺼우다. 아바님, 어머니 불를 꺼난 강 목
은 옷이 좋으파? 세(新) 옷이 좋으파? 목은 사름이 좋으파 세 사름이 좋으파? 목은 장이 좋으
파? 세 장이 돕네께?¹⁸³⁾ 헤연 문딱 목은 거가 좋덴 허건 나안티 장게 들고 문딱 세 거 들건
서수왕에 장겔 돕서예~.”

아닌 게 아니라 흐김 잇이난 아바지, 어머니가 불럼구나. 간 아바지 어머니안티,

“아바지, 어머니, 곶을 말이 잇우다.”

“무신 말이고?”

“목은 사름이 좋으파? 세 사름이 좋으파?”

“목은 사름은 속엔 말 곶아주고, 세 사람은 성격 몰르난 속펜 말 못허난 난 목은 사름이 좋
다.”

“세 옷이 좋으파? 목은 옷이 좋으파?”

“세 옷은 방장봉장¹⁸⁴⁾ 못 입고고, 목은 옷은 방장봉장 입으난 목은 옷이 좋다.”

“세 옷이 좋으파? 목은 장이 좋겐?”

허난,

“목은 장은 빗갈이 엇어도 깊은 맛 잇고, 세 장은 빗갈이 고와도 깊은 맛이 엇이난.”

“아이고 경 허믄 아바지, 어머니, 난 그날 알엿넉 네릴 때 주년국 땅 즈청비영 언약허난 나
서수왕에 장겔 아니 들쿠덴.”

176) 우이서: 위에서.

177) 본메 본짱: 증거가 되는 물건.

178) 갖연: 가지고.

179) 출령: 차려서.

180) 수꾸락도: 숟가락도.

181) 툄란: 뚫어서.

182) 까끈: 깎은.

183) 돕네께: 답니까.

184) 방장봉장: 아무렇게나 편하게 입는 모양.

허난,

“요건 무신 말이고?”

서수왕 똥애기한테 막편지¹⁸⁵⁾ 보내난, 서수왕 똥애기 이 막편지 술안¹⁸⁶⁾ 방 안네 먹언 석
돌 열흘 백일이 똥난, 세 몸에 환생(幻生)허엿구나. 머리아 두통세, 눈으로 골롱세, 코에야 송
념세, 입에는 악심세, 목에는 ㄱ는세, 가슴에 이열(裏熱)세, 오금에 조작세, 인간에 내려서 첫
살림 첫 애기, 남저(男子)에 공방세, 여자에 헤말림,¹⁸⁷⁾ 어린아기엔 경봉(驚風), 경짱(驚症).

남자여자 시집장게 가민 첫 수꾸락 제반 견언, 세각시 상 세 밥 세신랑 상 알더레 노민, 그
시집장게 강 잘 살고 첫 수꾸락을 그냥 먹으면 시집장게 강 못 사는 법입네다.

“즈청비가 우리 집 메누리 똥젠 허민, 진양도폭을¹⁸⁸⁾ 짱¹⁸⁹⁾ 올리렌.”

허난, 푸리¹⁹⁰⁾ 몸에 환생헤여 아버지 몸 치수를 알안 진양도폭을 지언 올렛구나.

“어머니 호탄치메,¹⁹¹⁾ 저구리, 멩지줄장옷¹⁹²⁾ 지영 올리렌.”

허민, 푸리 몸에 환생헤연 열두 복(幅) 호탄치메 저구리 멩지줄장옷을 헤여 가난,

“경 헤도 아니 똥켜. 야, 쉬운데 자 구덩이 파라.”

쉬운데 자 구덩이 파난,

“석 썸 솟을 비우라.”

불을 와랑와랑 살렛구나. 작두를 놓아건 곱는 말이,

“그디서 이디까지 건너오민 우리 집이 메누리렌.”

허난, 비세 ㄱ치 올어간다 문도령이 즈청비 흘목 심영,

“즈청비야, 오늘만이 죽어도 우리 집이 구신이로구나.”

이 말을 곱아가난 즈청비 관디청에 눈물이로구나. 서산베옥 ㄱ튼 양지 주용아반 연주지듯
비세 ㄱ치¹⁹³⁾ 올어간다.

“멩천 ㄱ튼 하늘님아, 나가 무신 쥬가¹⁹⁴⁾ 잇우파? 문도령 하나 좃앙 온 쥬벳기 엿우다. 나
를 죽일컬랑 왈랑실랑 타는 이 불구덩이 속더레 떨어지영 죽고, 나를 살려주컨들랑 보은 낭게
한 낭게 앓인 낭게¹⁹⁵⁾ 줍썩허게¹⁹⁶⁾ 끼와 줍서. ㄱ랑 빗발, 세 빗발이나 네어 줍서.”

헤여 가난, 앓인 낭게, 한 낭게 줍수 끼어 간다. ㄱ랑빗발, 세빗발 떨어지어 가난 와랑와랑
살라 오던 솟이 점점, 점점 꺼져 가난, 즈청빈 혼 자국 두 자국 넘어간다. 다 넘어가난 문도령
이 오란 흘목 심영,

“아이고 고생헤엿저.”

허난, 즈청비도 혼 자국만 네리믄 똥엇구나. 혼 자국을 마음을 놓안 네리는 게 똥 밭굼치가
베엇구나. 피야 별경허게 나난,

“아이고 씨아바님 씨어머님 알민 어똥허리?”

185) 막편지: 서로 혼인을 약속하여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예장(禮狀).

186) 술안: 태워서.

187) 헤말림: 남녀 사이를 벌여지게 하는 사기(邪氣).

188) 진양도폭을: 도포(道袍)의 하나를.

189) 짱: 짜서.

190) 푸리: 파리.

191) 호탄치메: 홀단치마.

192) 멩지줄장옷: 명주줄장옷.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 쓰던
옷.

193) 비세 ㄱ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 같이’ 정도의 뜻임.

194) 쥬가: 죄가.

195) 보은 낭게 한 낭게 앓인 낭게: 안개를 이르는 표현.

196) 줍썩허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화하는 모양.

속치메로 폭허게 씨난, 그 법으로 열다섯 여자 뒤편이민 혼 들에 혼번 월경 오는 법을 마련
헤엿우다예~.

씨부모에 효도헤여 간다. 남편에 공덕헤여 간다. 씨형제 간 씨방상에¹⁹⁷⁾ 화목헤여 간다. 궁
안네선 어서 문도령이 푸데쌈이나 헤여 보카, 쯤청비 푸데쌈이나 헤여 보카, 영 헤도 안 뉘고,
정 헤도 안 뉘난, 흐를날은 문도령을 궁 안네 불렀구나. 쯤청빈 불써 알았구나. 멩지숨을 갖다
단 문도령 가심더레 속속 집어 노멍,¹⁹⁸⁾

“낭군님아, 오늘 궁 안네 들어가민 궁녀청, 시녀청덜이 독술을 줄 꺼난, 절데 입에 노민 죽
어집네다. 가슴팍 알더레만 놓센.”

헤연, 궁 안네 들어간 궁녀청덜이,

“나 술 혼 잔 먹읍서. 나 술 혼 잔 먹읍서.”

가심팍 알더레만 비와가난 술은 아니 취헛구나. 이젠 집더레 오젠 물안장 우터레 올라 가가
난 주모할망안티,

“할마님아, 삼도전 세커리에 갖단 요 독술 혼 잔만 문도령 맥여 줍센.”

허난, 할마님 먼저 나오란 삼도전 세커리 앓았구나. 문도령 몰 탄 넘어가난,

“아이고 문도령아, 요 술 혼 잔만 풀아도라.”¹⁹⁹⁾

‘요 할망 술은 독 아니 잇일테주.’

헤연, 혼 잔을 먹은 죽엇구나. 물안장 우터레 특허게 걸쳐지난 말 모른 짐승도 집이 오란
마당더레 헤트랑허게²⁰⁰⁾ 노난,

“아이고 잘헤먹어라. 잘헤먹어라.”

문도령 방 안네 강 이불자리 폐완 놓져 두고, 쯤청비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곳 올란 메미
여.²⁰¹⁾ 봉에기여.²⁰²⁾ 잡아단 방 안네 그득 잡아 놓아고, 가시헤여단 가시방석 멘드라²⁰³⁾ 논다.
쨀를²⁰⁴⁾ 헤여단 쨀즈베기²⁰⁵⁾ 멘드라 놓았구나. 아닌 게 아니라 어둑어 가난 핏체 그든 도둑
놈덜은 쯤청비 푸데쌈허레²⁰⁶⁾ 들어오랏구나.

“우리 낭군님 앓아난 방석에나 혼번 앓아봅서.”

헤연 방석은 주언 앓이난, 똥꼬냥 팍팍팍팍 질러불엇구나.

“우리 낭군님 먹어난 즈베기²⁰⁷⁾ 혼번 먹어봅센.”

헤연, 먹어난에 쨀즈베기²⁰⁷⁾ 난 니가 와찌끈, 와찌끈 다 니빨이 꺼꺼지어 간다.

“우리 낭군님 잠자는 방에나 들어가 봅센.”

헤연, 방 문을 여난에 문소리에 메미 봉에기가 윙윙 울어간,

“아이고 문도령 죽지 안현 코골명 줍 잠구나.”

핏체 그든 도둑놈덜 다 가부난, 쯤청빈 옛날 김정싱 데감 띄님한티 장게 들언 서천꽃밭디
를 아난,²⁰⁸⁾ 강 서천꽃밭디를 강 문도령 살릴 꽃을 꺼꺼 오란 문도령을 살렸구나.

197) 씨방상에: 시대 친족에.

198) 노멍: 넣으면서.

199) 풀아도라: 팔아주라.

200) 헤트랑허게: 벌러덩하게.

201) 메미여: 매미여.

202) 봉에기여: 풍뎡이여.

203) 멘드라: 만들어.

204) 쨀를: 쇠를.

205) 쨀즈베기: 쇠로 만든 수제비를.

206) 푸데쌈허레: 보쌈하려고.

207) 즈베기: 수제비이니깐.

“문도령님아, 나 당신 좃안 오젠 허난 김정싱 데감 집이 단똥애기 조운(自願) 사위헤엿이난, 그디 강 초보름 살건 나한티 왕 후보름 살고, 나한티 후보름 살건 그디 강 초보름 샅센.”

허난, 문도령은 지꺼지언 알엇녁에 네렛구나. 김정싱 데감 집인 가난 단똥애기 곤는 말이,
“아이고 낭군님아, 어평행 저싱 그뎨 얼굴이 아니우덴?”

허난,

“강 과거 보젠 헌 게 속 타단 보난 얼굴도 다 변형뎨엿덴.”

허난, 폭허게 고정들엇구나. 아이고 그 집이서 초보름 산다. 후보름 살아도 아니 오라간다. 하늘 옥항에 세변난리(世變亂離)가 나앗구나. 하늘 옥항에 세변난리가 나난 문도령안티 부영세 젓놀게에 수양버들 잎세귀 헤연 펜지 답장을 보넛구나.

‘헌적 올라 읍서. 하늘 옥항에 세벤난리 낫우덴.’

세수허단 보난, 은데양에 떨어지언 세수허단 물안장 꺼꾸로²⁰⁹ 헤연 하늘 옥항에 올랏구나 예~. 세변난리 다 막으난에 옥항상전님 곤는 말이,

“열두 히망 곡석(穀食)을 주엇구나. 너네랑 인간에 제석할망으로 들어사렌.”

허난, 문도령, 쯤청비 열두 히망 곡석 가진 금세상(今世上)에 칠월 열나흘 데백중(大百中)날 네려오랏구나. 네려오난 주년국 땅에 간 보난 아버지, 어머님 죽어불고 정이 엇인 정수넴인 폭삭허게 늙언 베고판 허리 굽언 덩겜구나.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베고프우다. 밥이나 흐낌 먹게 헤여 줍센.”

헤연, 가단 보난 명에²¹⁰ 진 밧디 물 백 세, 쉼 백 세 종하님덜은 아이고 밧 같고 헤염구 나.

“그디 강 밥 흐 직 주렌 허라.”

가난에,

“우리 종 먹을 것도 엇저.”

후욕노욕(詬辱怒辱)허난,

“뭇엔 곶아니?”

“종 먹을 것도 엇덴 험디다.”

“이 밧디랑 정씨 뿌리지 말라. 이 밧디라건 밧 가는 장남에 강녕이 찢 게 께어지게 허라. 밧 가는 사름 벳보섭²¹¹ 께어지게 허라. 물 백 세, 쉼 백 세 세풀에 나가건 붕에기징 불려주라. 강녕이징 불려주라.”

이 밧디라건 흉년(凶年)을 멘드라 간다. 가단 보난 할망, 하르방 골쟁이²¹² 농스 헤염구나.

“그디 강 밥 흐 직 줍서.”

허난,

“흐저 먹으라. 우린 집이 가민 또시²¹³ 밥 잇젠.”

허난,

“어평허니?”

“그디 가난 밥 줍디다.”

“요디랑 정씨를 뿌리라.”

208) 아난: 아니간.

209) 꺼꾸로: 거꾸로.

210) 명에: 발머리.

211) 벳보섭: 벳보습. 쟁기의 벳과 보습.

212) 골쟁이: 호미.

213) 또시: 또.

정씨를 뿌려간다.

“무췌 으름, 췌 으름²¹⁴ 열게 허라.”

허나 두 게, 허나 두 게 농수를 견우와 가난,

“멍에 진 밧딘 보리 갈 건디랑 테우리랑²¹⁵ 나게 허고, 조랑 갈 건 와시리 들게 허고 허렌.”

헤연, 허나 두 게 세단 보난에 곡석 하나가 엇구나. 뭇고? 하늘 옥항에 강 보난 믰물씨가²¹⁶ 떨어지엇구나. 췌청비 갖연 오젠 허난 브름이 하도 불언 췌쟁이에²¹⁷ 췌전 네령오단 보난 믰물씨는 네 귀가 낫구나. 뿌리젠 허난 브름이 부난 강태공(姜太公) 서목시(首木手) 낭 비어난 디 톱밥 잇이난, 톱밥에 박박허게 뿌런 뿌리난 믰물²¹⁸ 농수는 두 불 농수 지고, 늦어도 헤영 먹는 법이고 빨라도 헤영 먹는 법이우다.

믰물 꺾장은²¹⁹ 히영허게²²⁰ 꽃²²¹ 피는 법이로구나. 옛날 바당에 짐수덜 물에 들레 가민 물속곳²²² 입어가민 이 가닥 들썩, 저 가닥 들썩 헤단 보민 물속곳 다 벗어져 가난 버리줄 별모작²²³ 헤연 속웃에 득는²²⁴ 법을 마련헤엿우다. 믰물씨가 별모작꺾치 멘든 것이 별모작이 뉘엇우다.

칠월 열나흘 데백중 상 받던 세경하르방은 들물 췌간이고, 할마님은 췌물 췌간이고, 상세경은 문도령이고, 중세경은 췌청비고, 하세경은 정이 엇인 정술덱입네다예~. 세경청은 세경테우리청 거느리영.

세경본풀이>테우리청 지사귀

○○야 저레 강²²⁵ 주잔권잔 네여단 나사민 천왕 테우리청, 지왕 테우리청, 인왕 테우청, 일곱귀양, 아홉신양. 일소장에, 이소장에, 삼소장에, 사소장에, 오소장에, 육소장에, 칠소장에, 팔소장에, 구소장에, 십소장, 십일소장, 십이소장 놀던 테우리청. 정이(旌義) 관목관(監牧官) 김덱에 헌마공신(獻馬功臣) 받아 읍던 물 백 세, 췌 백 세 두에 테우리청 지사겨 드립네다. 절로 나사민 수망리 노는 테우리청. 옷귀에²²⁶ 목장에, 수산 목장에, 성읍리 목장에, 송당 제동목장에 노는 테우리청. 옷다랑쉬에 놀던 테우리청. 옷선흘 알선흘 놀던 테우리청. 저 할로영산 위로 놀던 테우리청. 옷바메기, 알바메기, 옷선흘, 알선흘에 노는 테우리청. 제주 경마장에 노는 테우리청이로구나. 데정 목장에 노는 테우리청. 일곱장남 아홉췌 수멍이 아덜 수멍이 톱덜꺾지 많이 많이 열두 소잔입네다예~.

<세경본 풀엇우다예.>

214) 으름: 열매.

215) 테우리랑: 귀리(燕麥).

216) 믰물씨가: 메밀씨가.

217) 췌쟁이에: 겨드랑이에.

218) 믰물: 메밀.

219) 꺾장은: 꽃은.

220) 히영허게: 하얗게.

221) 꽃: 꽃.

222) 물속곳: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

223) 별모작: 매듭단추.

224) 득는: 다는.

225) ○○야 저레 강: 소무를 부르며 주잔 넘김을 하라고 지시하는 말임.

226) 옷귀에: 위미리에.